19세기 사진기술로 찍는 단 한 장의 추억

이창주
등대사진관 대표

글 김태환 객원기자(kimthin@techm.kr)

이규열 등대사진관 실장(왼쪽)과 이창주 등대사진관 대표.
습판사진으로 찍었다. (출처=등대사진관)

승용차 두 대가 몸을 비비며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골목길에 들어섰다. 멀리서 철길 건널목 종소리가 들려왔다. 상고머리 어린이가 장난감 칼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다. 마치 1970년대를 연상케 하는 서울 용산의 한 골목에 풍경처럼 등대사진관이 있었다.

이창주 등대사진관 대표는 아날로그의 불규칙성이 디지털과 차별화되는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습판사진은 단 한 순간의 실수로도 작품이 망가지는데다 결과물이 매번 똑같지 않아 새로운 자극을 준다. 과정의 복잡함이 주는 집중력과 더불어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원본의 희소성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아우라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포샵'에 지친 베테랑, 아날로그로 돌아가다

이창주 대표는 사진기자 출신이다. 유명잡지인 '주부생활'을 비롯해 아웃소싱을 통해 '엘르', '유행통신', '모터트렌드' 등 다양한 잡지사와 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사진 일을 하면 할수록 이 대표는 지쳐갔다.

"디지털카메라로 작업을 하면 편하지만 이후 수정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날로그 시절에는 사진을 찍으면 '잘 찍어주세요'라고 했지만, 디지털시대에는 사진을 대충 찍고 '포샵 아시죠?'라고 말하는 문화가 정착됐죠. 이렇다 보니 촬영 업무보다 수정 업무가 많아졌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수정으로 가능한 상황이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마치 보정이 만능이라는 분위기가 너무 팽배해진 것에 회의가 들었다고 말했다. 또 사진은 '기록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수정을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인물사진을 찍었을 경우 수정을 하면 당장은 멋있고 예쁘지만 시간이 지난 뒤 기록물로의 가치는 없어지게 됩니다. 정작 그 사람이 아니게 되죠.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점 하나, 털 하나 모두 남아있어야 합니다. 왜곡하고 수정해서 근사해 보이게 만들면서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이 늙어서도 사진 일을 계속 하게 된다면 어떤 사진이 어울릴까를 고민했다. 고민하던 찰나 동업자인 이규열 등대사진관 실장이 습판사진을 찍자고 제안했다.

습판사진의 정식명칭은 '웻플레이트 콜로디온 프로세스(Wet Plate Collodion Process)'로 1851년 영국의 프레드릭 스콧 아쳐에 의해 개발됐다. 쇠판에 필름 역할을 하는 유제를 바르고, 이 유제가 마르기 전에 판을 카메라에 꽂아 촬영을 한다. 이후 바로 현상과 건조, 코팅 과정을 거친다. 한 장을 찍기 위해선 30분~1시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새로 찍을 수 없기에 사진사와 모델 모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습판사진을 도입한 것은 이 대표가 최초다. 1850년대 개발된 기술이지만 당시 조선은 쇄국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고종 대에 이르러 문호를 개방했지만, 습판사진보다 발달한 신기술 검판사진이 도입되면서 습판사진은 우리나라에서 영영 잊힐 뻔했다.

"습판사진과 관련된 자료를 보고서 깊이 빠져들게 됐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흑백사진과 비교했을 때 질감이나 대조가 전혀 달랐죠. 사진 분야에 오래 종사했지만 이런 사진은 처음이었습니다. 불편한 제작 프로세스가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결국 그는 아날로그 시작점으로 돌아갔다. 이창주 대표는 습판사진의 매력에 대해 불규칙성에서 나오는 유니크함이라고 밝혔다.

"습판사진이 갖는 매력은 불규칙에 있습니다. 사진 자체가 철판이기 때문에 보존성이 좋습니다. 현재까지도 100년 이상 된 사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찍는 과정도 특별합니다. 철판에 찍히고 코팅을 하는데, 코팅제도 천연입니다. 나무진액에 알코올을 섞어 코팅하는데 이 복잡한 과정 자체가 디지털에선 상상하기 힘든 과정입니다."

특히 도포하는 약품의 컨디션에 따라 사진의 결과물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 오히려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약품의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 사진의 결과물이 다릅니다. 어떨 땐 따뜻한 톤이 나오고 차가운 톤이 나오기도 합니다. 습판사진을 인화하면 모든 사진에 얼룩이 있습니다. 이 얼룩도 산화도나 약품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위치가 다릅니다. 디지털은 찍으면 정확히 나오고 나중에 편집이 가능하죠. 습판사진은 아날로그적 프로세스가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는 또 일에 투입되는 과정이 복잡하고 힘든 것도 오히려 집중도를 높이고, 특별함을 배가시킨다고 말했다.

"아날로그 시절에는 일할 때 집중도가 디지털시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단 한 장을 찍어도 비용이 발생하는 행위였어요. 때문에 지금 디지털 카메라처럼 무한대로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결국 제한이 있고 그 안에 해결해야 하기에 진지함과 절실함이 있었죠. 하지만 디지털 시대는 긴장감이 없습니다."

등대사진관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특별한 것들을 좋아하거나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연인 또는 가족이 오거나 스포츠선수, 소설가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들이 직접 찾아오기도 한다.

용산역에서 도보로 15분 가량 구석진 골목으로 가면
등대사진관이 풍경처럼 있다.

"습판사진은 사진관이라는 공간에서의 기억을 포함한 추억이 생깁니다. 사진 찍는 과정도 힘들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억에 안 남을 수가 없죠."

등대사진관은 현재 틈나는 대로 한복 사진을 찍고 있다. 이후 해외에서 대규모로 전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무장지대(DMZ)를 습판사진으로 찍어 유네스코와 함께 전시회를 여는 대형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습판사진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확대해 나간다는 포부를 밝혔다.

"습판사진을 찍은 지 3년이 넘은 지금도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측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도 화학적 작용에 의해 상이 예상과 다르게 나올 때가 있죠. 그게 오히려 매력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습판사진을 찍어나갈 계획입니다." ⓜ